

일본 근대 여성의 글쓰기가 폭로하는 통합과 배제의 이중성

- 히라타 유미, 임경화 옮김,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 -(여류 작가)의
탄생 전야』, 소명출판, 2008.6. -

김영옥*

1. 남성의 자료로 여성을 논하다

이 책의 원제목은 『여성 표현의 메이지사(明治史)-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이전』인데, 일본의 문학사에 접할 기회가 적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을 약간 바꾼 것이다. 막번(幕藩) 체제의 봉건사회를 종식하고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한 메이지 시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히구치 이치요는 독자들에게 조금 생소하다. 메이지 문학에서 여성 표현자로서 상징적 존재인 히구치 이치요는 일본의 5000엔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책은 남성 중심적인 문학사 속에서 어개를 견주는 히구치 이치요가 나오기 이전까지 일본 근대 초 여성의 문학 환경을 젠더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히라타 유미는 공식적인 일본의 근대문학사가 배제했던 여성의 표현사를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작업의 의미는 188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중엽의 표현사를 다루면서, 국민국가와 국민·일본어의 관계를 젠더론

* 성균관대학교 일문과 강사

으로 통찰하는 점에 있다.

일본의 문학연구담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책 속에 펼쳐진 방대한 자료들을 일일이 점검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주의는 학문이라는 제도적 담론 세계를 관장하는 남성중심성이 노골화된 한 예다. 이런 점에서 히라타 유미가 [한국의 독자들에게]라는 역서 서문에서 일부러 도쿄대학 법학부 도서관 서고 안에서 작업하는 ‘여성’ 연구자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밝힌 것은 상징적이다. 히라타 유미가 자료를 조사하던 곳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대학 안에 세워진 석조의 고풍스러운 건물”이었기에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의 고신문이나 고잡지가 소장될 수 있었다. 히라타는 “많은 정치가나 고급관료를 배출한 장소”에 여성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1945년 겨울 무렵까지 무려 “70년 가까이 줄곧 그곳은 ‘여인 금제’의 성역”이었고, “여성 교수가 탄생하는 데에는 그보다 25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쓰고 있다. 즉 백여 년 여성들의 소리를 통하여 남성 권력의 산물인 자료주의를 역으로 상대화한 작업이 이 책이라는 말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료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처럼 근대 초 활자화된 미디어는 남성 지식인과 자본의 결탁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관리되는 여성 독자, 여성 저자의 문제는 당시의 어떤 한 시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번역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2. 여성의 근대로 일본의 근대를 논하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남성들의 담론만 난무했던 일본의 근대를 여성의 ‘말’을 통해서 입체화하여 소생시킨 점이다. 일본의 근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히라타 유미는 배제된 여성의 ‘말’과 ‘글’을 통해서 근대문학 성립에서 은폐된 부분을 파헤친다. 즉 근대국가를 모색하던 일본은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남성을 주체로 한 이른바 근대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은 서구 모델을 따라서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봉건 영주에 속했던 사람들을 ‘국민’으로 통합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근대국민국가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국민국가의 국민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봉건 세습제의 계층질서를 학문 즉 지적 능력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통합과 배제의 경계에 놓여있었다. 히라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약) 그녀들은 ‘국민화’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이름의 남성의 소유대상, 부속물로서 국민공동체의 외부에 놓여 있다. 마치 ‘문명’이 성립하기 위하여 문명이 퍼지지 않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야만’이라는 낙인을 찍어 가두는 표상행위가 없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국민’의 창출은 거기에서 배제되는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젠더는 통합과 배제의 시스템 그 자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11쪽)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근대 초기 담론은 여성을 ‘국민’에 의해 양육되는 가장 “하등”한 ‘국민’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새 질서에 맞는 새로운 계층화는 입신출세주의라는 미명하에 지적 인프라가 열악한 대상을 차별화함으로써 근대의 당위성을 획득한다. 서구가 비서구 사

람들을 ‘야만’으로 정의하면서 ‘근대’를 탄생시킨 것처럼 말이다. 이런 움직임은 전 분야에서 일어나지만, 히라타는 신문을 읽는 여성들의 글이 게재된 초기 소신문의 ‘투서란’을 통한 여성 표현의 형성에 주목한다. 소신문이란 정부 등의 공적인 담론을 고시하는 공공성이 강한 대신문과 대비하여 부녀동몽의 교화를 주목적으로 한 신문을 말하는데, 『요미우리신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히라타는 여기에 모인 여성들의 투서를 통해서 그 표현들이 제한되고 압살되는 경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3. 여성이 부국강병의 기초를 쌓다

이 책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여성이 말로서 통제하는 감금 상태에 갇혀있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100여 년 전 일본 상황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학문”은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선별하여 새로운 사회계층 속에 정위하는 표식이며, 학교는 그 내부의 계층적 상승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기여하는 대상-국가·지역공동체·가족-의 서열에 의하여 상중하로 등급화되는 ‘국민’이다. 그들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열외”에서 등급내로 이동하기 위하여, 즉 ‘국민’이 되기 위하여 ‘학문’을 익힐 것을 요구당한다. ‘국민화’는 서열을 동반한 통합과 배제를 의미하며, 거기에는 국가의 최소단위로서의 가정을 경영하는 능력이 ‘국민’의 안과 밖을 가르는 징표이다.(10쪽)

사실 사민평등의 슬로건에 숨어있는 국민의 식별 원리는 성, 지역, 경제 능력 등 각종 차별화 논리 없이 성립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와 같

은 “학문”을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인가. 개개인의 능력만 있으면 “학문”을 획득하여 신분상승이 된다는 것은 허구이고 기만적이다. 21세기인 현재에도 여성들의 학문적 인프라는 남성의 그것과는 달리 통합과 배제를 왕복하면서 견고하게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은 메이지 유신 후 “여자의 학문은 자기실현이나 자립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나 가정이라는 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여기서 히라타 유미는 남녀동권론이나 여성의 면학 장려라는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루트가 어떻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용해되는지를 당시 신문의 투고란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밝힌다. 방법적으로는 1874년에 창간된 『요미우리신문』과 이듬해 나온 『도쿄삼도신문』 등 초창기 신문들이 일본의 근대여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에 대해 일본의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읽어나간다.

히라타에 의하면 계몽을 목적으로 한 소신문은 여성들의 투서를 권유하다가 1880년대 후반 무렵부터 그녀들의 소리를 압살함으로써 근대의 자립된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목소리들을 배제한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이나 결혼제의 규범화나 여성의 문체를 한정하는 식으로 해서 여성들의 글쓰기를 남성들과 다른 영역을 취급하도록 통제한다.

그 결과는 여자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여성의 가정 밖의 임신출세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현모양처주의로 뒷받침하는 전제가 있을 때 용인된다. 그리고 이것에서조차 “배제된 여성들은 국가의 기초의 암부를 온몸으로 뒷받침하는 운명”이 예정되어 있었다. 여성은 부국가병이라는 커다란 테제 속에서 가장을 뒷바라지하고 2세를 똑똑하게, 건강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존재로서 자신도 모르게 납득당해 버린다.

히라타 유미가 지적하는 1880년대 중반 상황과 그 이후에 국가권력의

질서 만들기를 함께 고려하면 사태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인다. 국가는 여성의 정치활동 금지(1890), 치안경찰법(1900), 문부성의 ‘반 현모양처 주의적론’의 단속방침(1913) 등 제도적인 압살을 통해 더욱더 완고한 시스템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지식 여성은 거의 다 교육계, 의료계의 보조 인력의 형태로만 사회참여가 허용되었다. 여성들은 가정의 규수, 현모양처라는 틀 안에 소속되어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지는 1945년까지 형식적인 ‘국민’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4. 통제되는 여성의 목소리로 ‘일본어’를 생각하다

근대 이후 여성 교육은 근대의 활자 미디어를 지탱할 독자들을 양산하였고, 개화 초기 신문·잡지 러시의 중요한 인자가 되었다. 문명개화, 문명개량 등의 구호 아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정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여학잡지』(1885년) 등 여성 독자를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는 잡지들이 잇달아 창간된다. 『여학총지』(1885), 『이라즈메』(1887), 당시 저널리즘의 영도적 출판사인 박문관 발행의 『부녀잡지』(1891) 등에서 그 면모를 볼 수 있듯이, 『요미우리신문』이 나온 지 10년 남짓하여 시장 분화가 이루어진다. 때는 바야흐로 새 시대의 진로를 놓고 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여기서 히라타는 이들 잡지들이 여성들의 독서를 현모양처주의의 틀로 “독서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읽어야 할 책과 읽어서는 안 될 책을 지도함으로써 “여자의 본분론”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 책은 일본근대 소설의 모색기에 일어난 미디어와 여성독자, 여성 저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성과를 제시한다. 웹사이트의 게시판 기능과도 같은 신문·잡지의 투고란, 투고 소설

에 대한 답글, 문장 첨삭 등의 방식이 만들어낸 여성의 독서와 글쓰기의 지침은 누가 예정한 것도 아니면서 오늘날 자명한 것처럼 여기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다. 천부인권론이나 자유인권이라는 절대적인 인격의 보장은 사라지고 여성의 본분을 다해야만 적당한 범위에서 인권이 주어지는 전제 조건이 그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룰을 만들어낸 범인이 누구인가 일단 궁금해진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처럼 진범은 ‘국가장치’라는 베일에 모습을 감추고 좀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젠더의 명령어를 입력한 범인을 굳이 찾아야 한다면 근대의 권력질서일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젠더의 명령어를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히라타 유미는 그 단서를 여성독자들의 투고와 그 투고자들이 여성 저자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러한 움직임의 견제하고 여성의 말을 감금하는 근대 일본어 형성과정에서 찾으려고 한다. 언문일치의 일본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성 독자들의 읽기와, 여성 저자들의 글쓰기에는 ‘젠더의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고 그 명령어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젠더에 의한 규범의 재편 강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5. 여성의 글쓰기로 문학사를 재조명하다

이 책은 제3장에서 『덤불 속의 휘파람새』(1888), 『정혼의 굴레』(1888), 『깨진 반지』(1891)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텍스트를 분석한다. 이 텍스트들은 서양과 전통적 규범 사이에 대립, 결혼제도와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서구심취가 비판적으로 묘사되고 ‘여자의 본도=결혼’이라는 지배적 담론을 읽어내는 히라타는 “전통적 가치의

보수적 측면을 비전통적=서양적 가치의 마이너스 면과 함께 여자에게만 할당”하는 남권원리를 지적한다. 그 대신 여성들에게는 근대적 위생사상에 기초한 가정의 관리자로서의 측면이 강조된다. 즉 근대의 부정적 가치를 여성에게 씌우고 남성은 면제부를 받게 되는 어긋난 구조가 장치된 것이다. 나아가 인습적 사고를 강요하는 부권만이 존재하거나, 부모를 상실하거나, 딸들의 역경에 무력한 어머니들만 그려지는 점에서 여성 저술가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의거부’를 파악한다.

일본에서 근대소설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 1886년 쓰보우치 쇼요의 『소설신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설에 따르면, 동시대에 위 작품들이 여성의 표현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초 미디어의 발흥과 ‘소설의 시대’에 “이것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려 했던 무수한 독자 혹은 작가로서의 여성”이 존재했음에도 일본의 근대문학사에서는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 히라타 유미는 자신의 이와 같은 작업조차도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 수면 아래의 작가와 그 작품을 포함하는 전체상은 거의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덧붙인다. 다시 말해서 남성원리로 작성된 일본의 근대문학사는 그 규범에 맞는 히구치 이치요라는 걸출한 작가에서 여성문학의 출발을 보고, 여성들의 글쓰기가 근대문학 형성기에 어떻게 갈등하면서 전개되었는지 보려하지 않았다.

‘언문일치’의 일본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예창기의 저술 행위가 억압되어 저술가의 자격에서 탈락되고, 그나마 쓸 수 있었던 여성들은 남성들의 담론 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런 여성저자들의 시도는 일본의 ‘정통’ 문학사에서 배제되고, 뿐만 아니라 그 소수의 여성 저자들의 글의 체적에는 표현해 내지 못한 당시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의 심층부가 만년설처럼 저층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 억눌림을 발견해내자는 것이다.

6. 여성의 글쓰기로 ‘국민화’에 대항하다

그런데 4장의 ‘여성의 문체(style)를 가늠하다’는 이 책의 논리적 분석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면서, 독자들에게는 가장 난해한 곳이다. 역자의 고심한 흔적과 번역의 정성이 집약되면서도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은 역자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우리말과 대응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법체계가 다른 여러 가지 문체들을 하나의 문법체계 속에서 번역하는 행위는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어가 오늘날 일본어의 모습을 하기 전, 국민을 통합하는 근대적 문체 형성기에서는 다양한 문체들이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고 있었고, 여성의 문체도 그 갈등 속에서 위치하였던 것이다.

좀더 부연하면 언문일치체는 국민국가의 언어로서 국민을 창출해 내지만 여성들은 여기에 참여를 거부당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1인칭 서술이 시작되면서 서술자의 표식이 해제되고 무인칭 서술이 가능해지면서, 여성도 남성의 언어로서의 언문일치체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라타는 여성의 글쓰기가 ‘당신’이라는 2인칭에게 발화된 1인칭 대화구조를 지니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의 공동체성을 읽어낸다. 다음은 이 책의 에너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여자의 텍스트에는 ‘국민’으로부터 배제된 잔여 속에서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물론 거기에 ‘국민’으로의 참가 희망이나 혹은 내셔널리티를 매개로 한 ‘동포’로서의 ‘우리들’을 창출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 다양한 주체의 정립과 거기에 걸맞는 스타일이 있다. 특히 허구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세계는 그러한 다양한 주체가 폭주하는 장으로서 모든 스타일의 선택을 작가에게 허락한다. 여성에 의한 언문일치체소설은 예를 들면 『가슴속의 그리움』과 같이, 어떤 국면에서는 무

취의 표현주체로서의 남성성을 띤 의장(擬裝)문체를 실현하는 것이며, 다른 국면에서는 『깨진 반지』와 같이 ‘일인칭·여성’의 서술로 반전됨으로써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전위(轉位)하는 인식의 다층구조의 획득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깨진 반지』에서의 일인칭서술이 호소의 상대인 복수의 ‘너’와 함께 “저”와 ‘나’ 사이의 긴장을 배태한 자기를 출현시키는 것이었듯이, 여자가 손에 넣은 쓰는 행위는 하나의 바위로 여겨졌던 것에 균열을 가해, 그것을 내부에서 붕괴해가는 힘, 배제와 통합에 의한 ‘국민화’에 대항하고 그 폭력을 파헤치는 주체의 영위이다.(228쪽)

이들 분석을 통해서 히라타는 “쓰여진 말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내포하면서 존재하며, 글쓰기는 항상 공백을 거기에 써넣으면서 계속 써내려간다. ‘읽기’란, 이 공백을 읽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며 부재하는 여성의 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을 호소한다. 텍스트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여성의 텍스트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온 1999년 무렵 일본에서는 젠더론뿐만 아니라 근대의 표현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방법론들이 동시적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 젠더론 연구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 초기 여성 저술가들의 작품이 근대문학사의 서술대상에 진입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성차별을 없애고 문호가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이는 21세기인 지금도 파워엘리트는 여전히 남성이다. 물론 현대의 여성 작가들은 각종 문학 미디어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다. 히구치 이치요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또래인 와타야 리사를 만난다면 자신이 살던 시대와의 차이에 놀랄 것이다. 그러나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여성의 교육 인프라의 열세는 매우 교묘한 합리성으로 포장되어 여성을 배제하거나 통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닐까.

* * * * *

이 책의 원서는 서문과 본문, ‘여성문학 관련 연표’, 후기, 색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번역서에는 ‘역자 후기’를 달아 이 책의 의미와 번역 의도를 설명한다. 그리고 부록으로 연표 이외에 주요 분석 대상인 시미즈 시킨의 『깨진 반지』의 한국어 역을 달았고, 색인 대신에 인명·서명·사항해설을 부록으로 달아 편람을 돕는다. 색인의 번잡함을 생략한다는 의도겠지만, 학술서로서의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임경화의 번역도 충실하였는데 일본어 번역의 난점인 일본어 표기를 병기하는 부분이 읽기에 번잡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이 출판사의 편집방침인 듯한데 한자 표기에서 일관되게 일본어 상용한자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학술서의 엄밀함에서 따지면 옥의 티라 할 수 있겠다.